

# 추경서 누락된 행정통합 비용, 특별교부세로 살려야

## 강기정 시장, 통합 예산 없어... 정부에 573억 요청 신정훈 의원 "정부, 모든 재정 수단 동원해 도움"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비용이 '특별교부세'를 통해 확보될 지 주목된다. 최근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관련 비용을 전액 삭감하자 광주시가 특교세를 공식 요청한 데 이어 지역 정치권에 서도 통합비용에 대한 재정 지원을 요구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신정훈 의원은 20일 나란히 통합특별시 출범 관련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 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산 통합 160억원을 포함한 최소 행정비용

573억원이 이번 정부 추경에서 빠졌다"며 "삭감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비용을 특별교부세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정세 악화와 경제위기 대응의 시급성은 이해한다"면서도 "대한민국 최초 통합특별시 출범이 예산 부족으로 위태로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출신인 신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앞두고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전산 통합과 행정 준비 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못해

어렵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란 전쟁 등 예상치 못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 재정 편성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행정통합 준비까지 늦출 수는 없다"며 "준비되지 않은 통합은 혼란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7월 출범은 정해진 약속인 만큼 특별교부세 등 가능한 모든 재정 수단을 동원해 최소한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며 "중앙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또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홍

충남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일부 광역단체장들의 행정통합에 대한 부정적 반응에 대해 "행정통합 실패 책임을 미리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어 아쉽고, 민망하기 짝이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광주시와 전남도 통합준비단은 정부가 중등 불만에 따른 고유가 위기 대응을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경에 최소한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며 "중앙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예산을 추경안에 담지 않았다.

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시·도에 1000억원을 빌려주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지방정부가 추후 상환해야 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나 지역 현안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를 지정해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일종이다. 보통 교부세의 달리 특별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 영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강기정 광주시장과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 관계자들이 20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제22대 국회에 공식 촉구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남도 천년사찰서 '나를 찾는 여행' 도, 세계명상관광 대상지 옹호·능가사 등 선정

전남도는 유구한 역사의 지역 사찰을 세계적 명상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남 천년사찰 세계명상관광 사업' 대상지로 담양 옹호사, 고흥 능가사, 장흥 천관사, 장성 백양사, 완도 신흥사를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전남지역 천년사찰이 보유한 고유 문화자산과 명상 콘텐츠를 결합해 국내외 관광객에게 쉽고 치유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사찰 주요 프로그램은 담양 옹호사의 경우 차명상, 달피 수바래길 걷기 명상, 스님과 차담 등 '선명상 템플스테이'가 담양대나무축제 등과 연계해 5~10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고흥 능가사는 사찰 이름을 딴 '남도 천년사찰 명상 여행 해빛 능가'란 주제로 심양불 사운드 테라피, 해변 행선 등 프로그램이 있으며 고흥 유자축제와 연계해 8~12월 실시할 계획이다. 장흥 천관사는 '천관사 마인드 리트릿(Mind Retreat)'를 주제로 동백숲 걷기 명상 등을 천관사 산사음악회 등과 연계해 8~12월 추진한다.

장성 백양사는 참사람 가평정진, 다도명상, 호흡명상, 사찰 음식명상 프로그램 등을 백양사 예기단풍페스티벌과 연계해 10~11월 진행한다. 완도 신흥사는 '천년사찰 산사에서 명상하고 청정바다 완도에서 치유하다'란 주제로 심양불 와신, 좌선 등 사찰 정적 명상, 신지 명사심리해변·명사갯길 포항명상 등 동적 치유활동으로 구성된 해양치유센터체험, 청정완도 가을섬 여행과 연계해 6~12월 진행한다. 포항이란 불교에서 길을 걸으며 수행하는 것을 이른다. 사찰에는 각 25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지원금은 명상 공간 정비, 프로그램 개발·운영, 홍보 마케팅 등 사찰별 특색에 맞춘 명상관광 조성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최영주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전남의 천년사찰이 현대인의 지친 심신을 달래는 가장 훌륭한 휴식처가 될 것이다"며 "향후 지속적인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전남 사찰을 세계적 명상 치유관광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희 기자 holbu@gwangnam.co.kr

## "남도의 맛, 세계로... 중남권 K-푸드 산업 육성"

### 민형배 의원, 한국한식대학교 설치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20일 한식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한국한식대학교 설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한국한식대학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특수법인 대학으로 설립되며, 본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게 된다. 국가와 공공기관의 지원 아래 교육

·연구·산학협력을 통합한 한식 전문 고등교육기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민 의원은 "지금 세계는 K-컬처를 통해 한국을 만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음식이 있다"며 "한식은 더 이상 유행이 아니라 산업이자 국가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번 법안을 단순한 교육정책이 아닌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된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그동안 지역은 식재료를 공급하고, 기준과 브랜드는 외부가 가져가는 구조였다"며 "이제는 생산지인 전남광주가 한식의 기준을 만들고 산업과 인재를 동시에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한식대학교는 특정 캠퍼스 중심이 아닌 중남권 전체를 하나의 교육·연구·실증·산업 현장으로 연결하는 구조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농업·수산업·식품가공·바이오키·관광·외식·수출이 결합된 K-푸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또한 조리교육을 넘어 식재료·발효·영양·건강, 푸드테크·가능성 식품, 외식·관광·브랜드·수출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고등교육·연구 플랫폼으로 설계되며, 국제교육기관 및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계한 협력 모델도 함께 추진된다. 민형배 의원은 "한국한식대학교는 청년 일자리와 지역 산업, 먹거리 주권까지 함께 바꾸는 정책"이라며 "농어민은 더 높은 부가가치를 얻고, 청년은 지역에서 배우고 창업하고 정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전남광주로 반도체 국가산단 분산배치"

### 이종욱, 호남 대통합 등 생존·번영 위한 5대 전략 발표

진보당 이종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사진)가 전남광주로로의 반도체 산단 분산배치 등 호남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5대 전략을 내놨다. 이종욱 후보는 2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용인 삼성반도체 국가산단을 전남광주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분산배치해 대한민국 초격차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용수와 전기가 풍부한 전남광주 대신 용인 반도체 산단에 전력 공급용 송전탑을 건설하는 건 자연과 마을을 파괴하는 범죄나 다름없는 일방적인 폭력과 수탈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후보들은 반도체 산업을 전남광주로 유치하겠다고만 하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반도체 산단 분산배치에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선거 과정에서 민형배 후보와도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와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설득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호남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5대 전략으로 △전남광주와 전북을 합친 호남 대통합으로 600만 호남특별시 건설

△20조원 시민배당·투자위원회 설치 및 시민공동정부 시대 개막 △RE100 반도체·피지컬 AI 산업 등 첨단 제조업 유치 △호남 1시간 광역 교통망 조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전남·광주 기간산업 위기 대응책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미래의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전남 석유화학과 철강, 광주 자동차산업 등 당장의 일자리 위기해결이 너무 시급한 상황"이라며 "고부가 산업 전환 특위와 미래차산업전환 특위를 구성, 노동자와 행정이 함께 일자리를 지키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종욱 후보는 "진보당은 현재 국회의원 4명, 전남·광주 지방의원 12명의 강소 정당으로 거듭나 더 많은 지역에서 진보 정치를 펼치는 것을 목표로 이번 지방선거에 도전한다"며 "전남광주특별시의원 후보로 출마한 15명을 당선시켜 호남의 전성기를 열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모두가 편리한 무장애 특별시 조성"

### 강은미,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5대 핵심 공약 발표

정의당 강은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사진)가 '모두가 편리한 무장애 특별시' 조성을 위한 5대 핵심 공약을 내놨다. 강은미 후보는 20일 "장애인의 기본권이 일상에서 온전히 보장되는 통합특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확대, 탈시설·주거지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무장애 디자인 전면 도입 등 5대 핵심 공약을 추진한다. 우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차량 일일 16시간 운영을 보장하고, 차량 1대당 운전원 수를 2.5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버스정보시스템(BIS) 및 무장애정류소도 확대해 무장애 대중교통 환경을 구축한다.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모두의 노동자'를 적극 활용해 '권리중심 증진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통합특별시 권리중심 증진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를 제

정, 공공일자리 600명으로 늘리고 전남 인력 120명을 추가로 배치해 증진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구상이다.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거주 중심으로 전환도 속도를 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탈시설 전담팀을 구성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특별시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공매입주택에 공급과 전세임대주택 지원으로 장애인 지원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탈시설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내 장애인 자립을 위한 중추기관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센터 운영비를 현실화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계획이다. 강 후보는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무장애 디자인'도 전면 도입한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전남도, 고립청년 회복 지원 나선다 맞춤형 프로그램 시범 추진...3개 시군 공모

전남도가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청년을 발굴해 심리 회복과 사회참여를 돕는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남도는 '2026년 청년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이를 수행할 3개 시군을 공모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 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맞춤형 상담과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해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도는 '찾아가는 마음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상담 접근성을 높인다. 전라남도청년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전문 상담사가 권역별로 직접 방문해 상담을 진행한다. 심리적 부담으로 외부 활동이 어려운 청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고립·은둔 위기청년을 대상으로는 보

다 밀도 높은 지원이 이뤄진다. 1대1 심층 상담을 비롯해 자기회복 프로그램, 진로 탐색, 자조모임 등을 개인 상황에 맞춰 진행한다. 단순 상담을 넘어 생활 회복과 사회 복귀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사업 대상 지역은 공모를 통해 3개 시군을 선정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참여 시군과 함께 지역 내 고립청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취업·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경제정 전남도 청년희망과장은 "청년 고립 문제는 개인 차이를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과제"라며 "상담과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이 다시 사회로 나아가길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